

완도군 '완망진창',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청년지도·플리마켓·브이로그 제작 등 활동 "청년들 활동 지역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길"

완도군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완도지역 청년 공동체 '완망진창'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 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과업수

행비와 교류 협력 등이 지원된다. 청년 공동체 '완망진창(대표 김유술)'은 완도 청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청년 4명이 참여해 ▲청년지도 팸플릿 제작

▲8844 플리마켓 ▲순주 학교 ▲생소한 취미 수업 ▲'아무튼 완생' 브이로그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청년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은 올해 청년들 간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적인 청년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청년 동아리 7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년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의 활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사진은 완망진창 김유술 대표가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교육 당시 발표하는 모습.

진도군, 나배대교 개통...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기대

하조도와 나배도 연결...농수산물 판매 활성화·관광객 교통 편의 제공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나배대교'가 지난 21일(월) 개통했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 올해 2월말 준공된 나배대교는 총연장 1km, 폭 10.4m의 왕복 2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이다. 다리 개통 전 하루 2회 여객선으로 조도면을 다니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엔 나배대

교 개통으로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졌다.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나배대교 개통으로 새로운 관광 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과 동시에 농수산물의 적기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도면에 위치한 나배대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특성을 감안해 2개의 주탑 엑스트라드조드교(E/D교)를 적용,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시공됐다. 2개의 주탑에는 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시작부와

종점부에 설치하고 주탑부에는 다도해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 쉼터도 조성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나배대교 개통으로 조도면 출신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져 해양 관광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나배대교의 교명과 표지석 서체는 조도면 출신으로 해양 쓰레기를 이용, 재성을 화두로 빈티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캘리그래피 명장 제2호 석산 진성영 작가가 재능 기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강진군은 지난 15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제1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강진군,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기 아동보호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위기 아동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해 5월 구성됐다.

회의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확대 방안을 수립,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학대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행복지원 사업 추진,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 등 유관기관 간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군은 아동보호전문요원 및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긴급전화 설치 및 야간·휴일 당번제 운영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공동 대응 업무 협약, 현장대응 전용 차량 구입 등 아동학대에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도 지원...해남형 ESG 적극 추진

해남군은 해남형 ESG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4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7대로, 미세먼지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도 저감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1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2004년 이전 제작)한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조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로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의 최종 소유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해남군에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액은 종류에 따라 최소 354만원에서 58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새로 장착하는 엔진의 등급에 따라 9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 외 추가발생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인터넷 신청(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홈페이지)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받는다. 우편 신청 시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및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우선지원 대상자 중 생계형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구비 없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용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첫 정기회의

장흥군 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안건으로 진행됐다. 2022년도 5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홍보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수혜자 지원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

론을 진행했다. 김정렬 공동위원장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노력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